



“몸의 소중함 가르치는 게 우리 아이 지키는 안전교육”

오늘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해바라기아동센터 신가숙 소장이 말하는 성폭력 예방법

“내 아이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요? 위험은 언제나 예기치 않는 순간에 찾아오기 때문에 평소 예방이 중요합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은 바로 내 몸을 지키기 위한 안전교육입니다.”

22일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호남해바라기아동센터(이하 센터) 신가숙 소장은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아동 성폭력이 해마다 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 소장에 따르면 아동 성폭력은 성인과 달리

피해 아동이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해 피해 기간도 길고 이는 사람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피해 아동은 대인에 대한 불신감으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후유증이 심하게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 소장은 “아이들에게 내 몸이 소중하다는 것, 타인이 내 몸을 함부로 만지는 것이 폭력이라고 가르치는 예방교육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타인이 신체접촉을 하거나 싫은 느낌이 들 경우 단호하게 ‘싫다’고 말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동을 꾸고 불안한 증상을 보이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등 난폭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며, 나무를 그리면서 성기모양을 그리는 등 피해 아동들이 겪는 정서적인 장애는 피해는 상상을 초

월한다.

“미국에서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의 80%가 아동기 때 성폭력을 당한 경험에 있다고 해요. 성폭력이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 가해자들은 한마디로 ‘영혼의 살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리학을 전공한 신 소장은 아동 성폭력범의 경우 범행 동기가 직접적 성욕보다는 부정적 자아의식이나 열등감, 약자에 대한 편견 등 심리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교육과 심리치료 등의 재활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 소장은 처벌에 있어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등 아동 성폭력에 강하게 대처하는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

고 지적했다.

신 소장은 “형량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선 잘못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가해자들을 상대로 재발방지 교육은 물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 피해 아동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지 등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포괄적인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신 소장은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부모들은 아이가 상처를 받게 될까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전문기관을 찾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아이의 정서적인 변화를 살펴 무조건 아이의 편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사진=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종교칼럼



도일

“나도 크면 아버지처럼 운전할래요” 이것은 부산가는 고속도로에 붙여져 있는 표어이다. 혼자 운전할 때는 거칠게 하고 목적도 합부로 하지 만 자녀 앞에서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부모는 없다. 언제나 좋은 부모로 기억되고 싶은 것이 부모의 생각이다. 또 사회생활하면서 존경받는 사람, 기억되고 싶은 사람으로 살고 싶은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그렇게 되고 싶어도 자신도 모르게 뿔어져 나오는 평소의 좋지 않은 습관을 때문에 희망했던 이미지가 구겨지기도 한다.

동양의 옛 사람들은 훌륭한 인격을

품위는 인내에서

지닌 사람을 군자로 하였다. 군자가 되기 위해 쌓는 노력은 여러 가지였지만 그 가운데 강조되는 것은 인내였다.

다시 말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로하고 사람들로 부터 존경을 받으려면 인내를 배우는 것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것은 군자뿐만 아니라 서양의 인사도 조선의 선비정신, 나아가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까지 최고의 인격에 도달하는 방법으로는 인내가 가장 으뜸 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태양으로 숭배되는 충무공 이순신은 자신에게 역올한 일이 닦혔을 때 변명하지 않았고, 공과 사의 구분이 분명하였으나, 참지 못할 만한 일도 능히 참았기 때문에 큰 인격을 완성한 것이다.

이러한 충무공의 인격은 오히려 적국이었던 일본에서 전쟁의 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이런 큰 인격은 아니더라도 평소의 생활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균형 가진 생각을 닦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이 많아야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갖는 것이 배워서 갖는 것처럼 인격도 참는 것과 큰 도량이 삶 속에서 연수가 되어야 가능하다.

이런 연수가 쌓여 말씨와 몸가짐에서 품위가 생기는 것이다. 대집경(大集經)에 의하면 부처님께서는 인내를 다음과 같이 찬탄하셨다.

“인욕(인내)은 친구가 되어주며, 인욕은 명예를 높여주며, 인욕은 재산을 늘려주며, 인욕은 바른 용모를 갖게 하며, 인욕은 세상을 비추며, 인욕은 위력을 갖추게 하며, 인욕은 지혜를 이루게 한다.”

가끔 품위 있는 몸가짐을 가진 사람을 보면 그와 같은 격을 갖추기 위해 인내한 그 사람의 평소의 모습을 짐작하게 된다. ‘나도 크면 아버지 같은 품위를 갖출래요’ 라는 말을 가족에게 들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찬사보다도 빛날 것이다. (송광사 월인)

“깨닫지 못하면 물 한방울도 빛”



순천 송광사 동안거 해제

“금승에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한 방울 물도 빛이 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1교구 본사 조계종림 송광사의 선원인 수선사와 문수전에서 수행에 전념하던 선승 30명이 21일 경내 사자루에서 동안거 해제법회를 가진 뒤 만행(萬行)에 나섰다.

이날 해제법회에서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사진)은 “만일 한쪽만 집착해서 공부한다면 얼음으로 부처님 모습을 세기는 것과 같다”며 “이 자리에 모인 대중은 분별심으로 헤아려 알고자 하지 말고 열심히 참구(參究)하라”고 해제 후에도 끊임없는 정진을 당부했다.

이날 해제법회에 앞서 동안거 기간에 계율을 잘 지켜 수행했다는 점검하는 포살법회에서 설게

사(說戒師)로 나선 주지 영조스님은 “참회하면 곧 안락해지고 참회하지 않으면 죄는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살생하지 말라’ 등 ‘십계’(十戒)와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술을 마시지 말라’ 등 금기사항을 담은 ‘사십팔 경계’(四十八警戒)를 설했다.

올해 송광사 동안거에는 인도 출신 해탈스님 등이 참여했으며, 조계종 총림 5곳, 비구선원 55곳, 비구니선원 34곳 등 전국 94개 선원에서 2천222명이 이날 안거수행을 정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안거(安居)=불교에서 스님들이 하절기(음력 4월 보름~7월 보름)와 동절기(음력 10월 보름~정월 보름) 3개월 동안 외부와의 출입을 끊고 참선수행에 몰두하는 것. 부처가 발래를 죽이지 못하도록 돌아다니는 것을 금한 데서 유래했다.

아동 성폭력 범죄 갈수록 늘어

2005년 2월 서울 용산에서 동네 신발가게를 운영하는 중년 남성이 11살의 여자어린이를 성추행한 뒤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아동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지난해 2월 22일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을 제정했다. 하지만 아동 성폭력 범죄는 꾸준히 늘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취약아동(883건) 중 74%가 학교 반경 2km 이내에서 발생했다. 또 발생시간은 오후 2~5시가 819건, 그중에서도 오후 3~4시가 59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아이들의 주변 활동 공간인 학교와 학원, 그리고 이동하는 시간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사랑의 오곡밥 광주시 서구 차평동 무각사(주지 청학스님)는 21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독거노인 80여명을 초청, 사랑의 오곡밥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최현태기자 choi@kwangju.co.kr

성폭력 예방 이것만은 가르쳐야

- 이웃, 친척, 낯선 사람이 몸을 만지지 못하게 한다.
- 집안에 혼자 있을 때는 가족에게만 문을 열어준다.
- 모르는 사람이 길을 물어오면 함께 가라고 해도 따라가지 않는다. 놀이터에서 혼자 놀게 하면 안 된다.
- 이름과 나이, 주소, 전화번호, 부모 이름 등을 기억하도록 한다.
- 집 앞이라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
- 학원서 돌아올 때는 골목길보다는 큰 길을 이용한다.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 성가집 등 발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장 장의주)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성가집과 기도서 등 가톨릭 전례집을 4월 말 발간한다.

주교회의는 244쪽 분량의 가톨릭 성가집, 272쪽 분량의 기도서를 각각 1천 권씩 제작해 전국 교구의 지방선교회회를 통해 무료 보급할 예정이다. 문의 02-451-0333. /연합뉴스

대인동상일부동산
☎ (062)233-1140, 021-021-802-2332 (광주광역시 남동구, 대인동 소재 2건)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번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연·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첨단월계공인중개사
☎ (072)972-4585, 011-804-8205 (첨단지구 부영아파트 단지 내)

★ 급매매 ★

- 첨단 인근 비아동 일반주택 지역 1000평 대세대주택, 물류창고, 특색사업시설
- 첨단중심상업지역 200평, 매 280만원 (공시지가 280만원), 230평

첨단중심 상업매매
부영지명상 2008년 가형지 앞 314평 부영 호반아파트 정문 앞 145, 135평 비이트-후수공영 부영유치지역 100평

첨단 원룸 건물 급매
#68 칸 145 원룸 17 스킵 1개 보 7000만 원 495만 매 4543천만
#70 대 110평 원룸 15개 보 2000만 원 480만 매 498천만
#17형동 칸 120 원룸 6 투룸 3 주 인 빌 3개 보 1억 2천만 원 180만 매 4억 1천만
#68형동 칸 127평+주거층 투룸 4 원룸 8 보 8800만 원 300만 동 4200만 매 4억 7천만

첨단 인근 녹지 급매매
-신기동 부영 8부근
-생선죽지 900평
-안원동, 비아 중형 8부근
-생선죽지 900평
-도천동 공단 8부근 450평 700평 공장, 창고 적합
-북구 지아동 30m 도로 인근 전후면 도로결기, 창고, 창고, 공장 적합

고흥신도시공인중개사
☎ (061)833-6669, 010-8004-6669

·여수-고흥 비닷가
매실밭 1300평 득량만 바닷가 인접(매실수확) 평당 5만 원 (경치 최고)

·고흥-농목장용지
임야 2500평 고령경사 10% 경사 가리 위치함 차용진입가능, 남향 관내지역 평당 2만 원

·섬고흥 득량도섬
비닷가 해안면 700평 평당 3만원 (뉴시티, 별장지 최적)

·고흥-조선소근거리
싱가포르지, 시외버스터미널 (영) 4차선도로면 약 1200평, 평당 50만 원

·고흥비닷가
유자, 매실농장 3천평 대 전리 해수욕장주변, 경치 최고 평당 7만 원 (광주-고흥우주센터)도로 완공시 광주까지 30분 거리(현공사중)

법원경매 전문
지지경매컨설팅(주)
(법원 경매입찰장 원)
☎ 062-226-0047 ~ 8

명석한 권리분석, 명쾌한 명도, 명확한 수익성 분석에 의한 재테크 전문상담

▶ 아파트/빌라

소재지	면적/층	건평/가	최저가
오차동 주공	117/4층	339평	3천1백
지평동 현대	32/6층	194평	1920만
임산동 영일/대	30/11층	193평	1920만
유봉동 현대	32/4층	193평	1920만
금호동 현대/대	34/4층	194평	1920만
월계동 박산	34/4층	196평	1920만
동명동 유일/대	24/4층	422평	3천1백
월계동 쌍용	30/6층	422평	3천1백
금호동 모아/빌	31/8층	294평	1920만
두암동 모아/빌	26/7층	192평	1920만
두암동 미라/빌	32/9층	292평	5200만

▶ 전철/상가주택/오피스텔

소재지	대/건	건평/가	최저가
자선동 새우나	156/401	149	6910만
회평동 오일	70/204	591	2920만
유봉동 오일	165/509	155	5920만
월계동 유일/대	100/23	793	4910만
신안동 문물	58/23	594	3910만
누운동	41/34	493	2920만
송정동 현대/대	97/42	592	2920만

▶ 주택

소재지	대/건	건평/가	최저가
유봉동(전대)	52/53	192	7200만
두암동	33/46	192	1920만
신수동	27/11	424	1920만
소매동	125/71	294	1920만
문물동	57/31	192	6900만
오차동	70/64	192	920만
두암동	62/41	192	3200만

▶ 토지/공장

소재지	대/건	건평/가	최저가
광안동 오일	192/600	391	1920만
천안동 지복	480/465	119	6920만
북구/신안	320	391	1920만
문물동	569/330	391	2920만
당양동	883/386	391	1920만
남구/대지	92	424	1920만

특급상가 매매·임대

북구 용봉동 투룸 상가주택
대지 238㎡(72평), 연면적 396㎡(120평) 인 3층 코너 건물 395㎡(1170평) 인 10년, 최근 리모델링 최신시설(콜11개, 소방안전필증) 영업시간 19시(간오전 11시~새벽 6시), 낮에는 중고생/밤에는 대학생 전용 숙소로 적합. 연투자수익률 11% 이상된다. 세금문제로 인한 급매물, 실 취객가격은 4억5천만원

전대후문 노래방 215㎡
보증금 5,000/월 150/승 15,000
영업시간 10년, 최근 리모델링 최신시설(콜11개, 소방안전필증) 영업시간 19시(간오전 11시~새벽 6시), 낮에는 중고생/밤에는 대학생 전용 숙소로 적합. 연투자수익률 11% 이상된다. 세금문제로 인한 급매물, 실 취객가격은 4억5천만원

전대후문 대로변 1층 166㎡ 상가
보증금 1억, 월 7백만원, 승 395천만원 인 상가점포가 매물로 나왔다. (분할가능)
광주대학교 상권 중 최고의 유동인구와 상권 밀집지역이다. 주말 유동인구 10만 1000.
점포 뒷공간 67㎡(20평)도 활용가능하다.
커피숍, 안경점, 뷰티샵, 이동통신 등 수많은 예비창업지점들과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리브콜”을 받은 곳

북구 운암동 인근 2천세대 아파트상가 2층 학원 198㎡
매대가 21,500만원(증지 6,500만원/사실-집기 포함)

상가 전문중개업자 전문 공인중개사사무소
BM 公認仲介士 事務所
부동산은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방은 신의 손 37개항에 연계를 실시하고, 입찰권 포함하여 2주 전 계약 체결 가능합니다. 항상 도우며 감사드립니다.
mobile 010-7288-4351, 02-4342-884
(한국부동산원 등록번호)

법원경매 전문회사
- 앞서는 사람들 - (주) 옥션코리아
(법원경매입찰장 원) 상담전화: (062) 222-8446

성공적 파트너 / (주) 옥션코리아 무료상담 권리분석, 명도 유류권내역서 및 권리분석서, 낙찰가(입찰보증금)에 10% 추가, 가산금, 가산금, 가산금 등, 최신회원 상담을 기다립니다. (평로환산시 m x 0.3025)

▶ 근린시설/근린상가

소재지	면적/층	건평/가	최저가
송정동 현대/빌	117/4층	339평	3천1백
월계동 유일/대	100/23	793	4910만
신안동 문물	58/23	594	3910만
누운동	41/34	493	2920만
송정동 현대/대	97/42	592	2920만

▶ 주택

소재지	대/건	건평/가	최저가
유봉동(전대)	52/53	192	7200만
두암동	33/46	192	1920만
신수동	27/11	424	1920만
소매동	125/71	294	1920만
문물동	57/31	192	6900만
오차동	70/64	192	920만
두암동	62/41	192	3200만

▶ 토지

소재지	대/건	건평/가	최저가
남구/대지	92	424	1920만
문물동	569/330	391	2920만
당양동	883/386	391	1920만
북구/신안	320	391	1920만
천안동 지복	480/465	119	6920만
광안동 오일	192/600	391	1920만